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졸업시험

(특차 / 시행일 2019. 11. 1.)

성명: 학번: 2020년 2월 졸업예정여부 ()

기취업자 직장명 : 정규직/비정규직 취업일자:

I, II 영역 통합 (총 100점. 70점 이상 합격. 60분)

* 다음 진술을 읽고 옳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십시오. (각 1점. 오답은 0.5점 감점. 모르면 비워둘 것!)

- ☐ ☐ × 01. 명 말 청 초의 시기에 중국에서 활동한 영미 출신 개신교 선교사들은 서양과 중국 간 문명 교류에 많은 공헌을 했다.
- ☐ ☐ × 02.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시기에 일본인들은 중립적 명칭을 사용한다는 취지로 ‘중국’ 대신 ‘시나(支那)’란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청일전쟁 이후 이는 폄하와 멸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 ☐ ☐ × 03. 1983년에 있었던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는 중국 붐이 일기 시작했으며 바로 이듬해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 ☐ ☐ × 04. 중국에서는 고대 춘추시대 주요 국가인 齊, 晉, 秦, 楚, 吳 등의 이름을 따서 ‘楚文化’ 등등, 해당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지칭하는 데 쓰고 있다.
- ☐ ☐ × 05. 중국은 동서로 약 5200km에 걸친 영토를 갖고 있으나 오늘날 모든 지역에 단일한 표준시간대를 적용하고 있다.
- ☐ ☐ × 06. 경제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중국은 영토를 ‘3개 지대’, ‘7개 경제구’으로 나누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분인 ‘3개 지대’는 중국을 가장 낙후된 ‘북부’,中间的 발전 정도를 보이는 ‘중부’, 가장 발전한 ‘남부’로 나누는 것이다.
- ☐ ☐ × 07. 중국은 대체적으로 서고동저의 지형으로 중국 땅을 가로질러 흐르는 큰 하천은 대개 서에서 동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 ☐ ☐ × 08. 오늘날 중국 국토의 약 80%가 경작 가능한 평야로 중국 경제에서 농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 ☐ × 09.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식별’ 과정은 아무리 적은 수를 이루게 되더라도 각 집단의 자기정체성과 소속의식을 철저히 존중해 주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 ☐ ☐ × 10. 중국의 인구 가운데 대략 반 가까이 漢族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반을 여타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 ☐ ☐ × 11. 西藏, 新疆, 內蒙古 등 지역은 청대 이후로 중국에 통합되었지만,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경제적 이유로 독립이나 더 많은 자치, 공평한 대우 등을 요구하는 소요가 얼마간에 한번 씩 일어나고 있다.
- ☐ ☐ × 12. 1979년에 도입된 ‘한 자녀’ 정책은 오늘날까지 예외 규정 없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 ☐ ☐ × 13. 중국의 방언 사이의 차이는 대단히 커서 따로 배우지 않으면 베이징 사람은 광둥어를 알아듣기 힘들다.
- ☐ ☐ × 14. 역사상 거대한 제국의 분열과 그에 따른 수개 정권의 대치상황은 결과적으로 ‘중국’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 ☐ ☐ × 15. 역사상 통일제국의 수도가 대부분 북방에 치우쳐 있던 것은 풍요로운 자연환경이 가장 큰 이유였다.
- ☐ ☐ × 16. 신석기 문명의 경우 ‘황허 중심’을 주장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유적이 다른 큰 강의 유역에서도 발굴되었으며, 청동기 문명의 경우에도 황허 유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설은 근거가 없다.
- ☐ ☐ × 17. 강력한 권력의 결집과 고대국가체제로의 이행은 황허 유역이 빨랐는데, 주요한 이유들로 강력한 북방 유목집단과의 대치상황과 효율적인 치수의 필요성이 꼽힌다.
- ☐ ☐ × 18. 이전에는 전설의 왕조로 치부되었던 夏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甲骨文과 殷墟의 발견으로 비교적 상세히 알려지게 되었다.
- ☐ ☐ × 19. 周나라가 실시한 封建 제도는 결과적으로 중심 국가였던 周의 약체화, 강력한 제후국의 부상을 초래했다.
- ☐ ☐ × 20. 제자백가란 쇠약해진 주나라가 쇠신을 위해 등용한 다양한 학파의 인재들을 두루 가리킨다.
- ☐ ☐ × 21. 한 무제 때 이루어진 흉노와의 전쟁은 오늘날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유라시아 대륙 동서를 잇는 교역로에 대한 통제권 획득과 깊은 관련이 있다.
- ☐ ☐ × 22. 선비족 등 북방 유목계 민족들이 남하하여 황하 유역에 나라를 세움에 따라 중원 지역(오늘날 허난, 산시 일원)으로부터 창장 유역으로의 대규모 화하족(한족) 인구이동이 이루어졌고,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었다.
- ☐ ☐ × 23. 唐은 외국인이 관직이 오르는 것을 허용하는 등 많은 부문에서 대단히 포용적이었지만 외국인의 거주구역을

따로 정하는 등 율령에 의한 엄격한 통제도 병행했다.

- ☐ ☐ ☐ 24.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는 과거제도가 처음 실시된 시기는 隋나라 때였다.
- ☐ ☐ ☐ 25. 唐의 수도 長安은 제국의 성격에 걸맞게 넓은 간선 도로와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형 공간을 특징으로 한다.
- ☐ ☐ ☐ 26. 여진족의 세운 金나라가 황허 유역을 차지함에 따라 宋나라는 수도를 오늘날 항주로 옮겼고, 이후 시대를 ‘南宋’이라고 부른다.
- ☐ ☐ ☐ 27. 오늘날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광대한 영토의 직접적 기초를 놓은 것은 명나라 때 鄭和의 해상 원정의 결과이다.
- ☐ ☐ ☐ 28. 淸나라는 베이징의 황궁을 포함, 明나라의 유산을 철저히 파괴한 뒤에 수도를 재건했다.
- ☐ ☐ ☐ 29. 1840-42년 동안 진행된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조는 난징에서 영국과 불평등조약을 맺어 마카오를 할양했으며 텐진항을 비롯해 주요 5개 항구를 개방했다.
- ☐ ☐ ☐ 30. 洪秀全이 이끈 태평천국군은 중국 최초의 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했으나 청나라와 서구열강의 개입으로 좌절되었다.
- ☐ ☐ ☐ 31. 오사운동은 주로 생활, 문화 영역에 한정된 운동으로 전족반대와 백화문 사용이 주된 이슈였다.
- ☐ ☐ ☐ 32. 1934년 10월부터 1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홍군의 ‘대장정’의 과정 중에 중국공산당에 대한 마오쩌둥의 지도력이 확고히 다져졌다.
- ☐ ☐ ☐ 33. 1937년에 만주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공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협력관계에 들어가는데 이를 제2차 국공합작이라고 한다.
- ☐ ☐ ☐ 34.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소련 붕괴 때까지 중소 양국은 내내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 ☐ ☐ ☐ 35. 10년 동란이라고도 불리는 문화대혁명(1966-76)은 복잡하게 중첩된 원인을 갖지만 이른바 사인방에게 대부분 죄과를 전가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 ☐ ☐ ☐ 36. 마오쩌둥 시대는 흔히 정치적 폭압과 경제적 낙후의 시대로 표상되지만, 삼농(농촌, 농업, 농민) 부문의 희생적 기여에 의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서 공업화를 위한 원시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진 시기로 보기도 한다.
- ☐ ☐ ☐ 37. 덩샤오핑의 ‘黑貓白貓’론이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 시대의 실용주의노선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 ☐ ☐ ☐ 38. 오늘날 중국공산당원이 되려면 엄밀한 심사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며 당원의 숫자는 엄격히 제한되어 전체 인구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 ☐ ☐ 39.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와 국가 군사위원회는 군에 대한 당의 완벽한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인적구성에서부터 사실상 하나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 ☐ ☐ ☐ 40. ‘19기 1중대회’라고 하면 ‘19번째로 구성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뜻한다.
- ☐ ☐ ☐ 41. 중국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원 위원 및 각 부 부장, 위원회 주임 등 중앙인민정부 고위직은 최고권력기관인 ‘전국민대표대회, 약칭 全人大’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 ☐ ☐ ☐ 42. 베이징은 원나라 건국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화민국 초기 수 년을 제외하고는 내내 수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 ☐ ☐ ☐ 43. 베이징에는 천안문 광장을 사이에 두고 국가박물관과 인민대회당이 동서로 마주하고 있다.
- ☐ ☐ ☐ 44. 최근 상하이의 도시개발은 조계를 포함한 옛 상하이의 치욕스런 흔적을 가능한대로 없애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황푸 강변의 서양식 건축물들은 대부분 철거되었다.
- ☐ ☐ ☐ 45. 2010년에 개최된 상하이 엑스포는 서방 국가의 보이코트로 ‘반쪽’ 엑스포에 그쳤다.
- ☐ ☐ ☐ 46. 타이완은 중국과 유엔에 함께 가입되어 있는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활동하고 있다.
- ☐ ☐ ☐ 47. ‘포르모사’는 포르투갈인이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마카오를 두고 처음에 붙였던 이름이다.
- ☐ ☐ ☐ 48. 홍콩은 1894년 청일전쟁 결과 타이완과 함께 일본에 할양되었다가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함에 따라 중국에 다시 귀속되었다.
- ☐ ☐ ☐ 49. 구한말과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주요한 상업세력으로 성장한 한국의 화교는 정부의 장려에 따라 19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 ☐ ☐ ☐ 50. 도교의 신들의 위계질서는 전통시기 옛 중국의 관료체계와 매우 닮아있다.

* 해당 하는 지역을 찾아 번호를 적어 넣으십시오.(각 1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1. ‘아무르강’의 중국어 이름이 성 이름인 곳.
02. 2008년 올림픽이 개최된 곳.
03.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이주한 곳.
04. 洞庭湖의 북쪽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성으로 성회는 武漢이다.
05. 商나라의 유적인 殷墟가 위치해 있으며, 黃河를 기준으로 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06. 약칭이 ‘川’ 혹은 ‘蜀’인 곳에서 1997년에 직할시로 분리된 곳.
07. 약칭이 ‘沪(滬)’인 곳.
08. 역내의 거대한 염수호 이름이 곧 이 성의 이름이다.
09. 유학의 발상지이며 泰山으로 유명한 성.
10. 이 성의 성회에서는 2014년부터 대규모의 삼성반도체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했다.
11. 자치구 가운데 하나로 수려한 산수로 유명한 桂林의 앞 글자가 약칭으로 쓰인다.
12. 특별행정구의 하나로 과거 동서문명교류의 주요 지점이었으며 현재 카지노업이 발달함.
13. 해상실크로드 기점 도시로 서양인들이 ‘자이툰’이라고 불렀던 곳이 위치한 성.
14. 한국 화교는 대부분 이 지역 출신이다.
15. 청나라 수립 이전 ‘후금’의 수도가 이곳에 위치했으며 지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과 관련된 명칭을 가지고 있다.
16. 성회가 西寧, 회족 자치구.
17. 조선족자치주가 위치한 성.
18. 이 성의 성회는 瀋陽이며 북방 중국의 주요 군항인 大連항이 있다.
19. 이곳에서는 2014년 중앙정부의 억압에 반대하는 ‘우산 시위’가 일어났으며, 2019년 현재, 수개월에 걸친 소요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
20.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을 이룩한 秦의 수도가 있었던 곳.

* 다음 항목을 개시 연대순에 따라 나열하고 (10점, 부분 점수 부여), 각각에 대해 약술하시오. (각 2점)

일대일로, 의화단반란, 청일전쟁, 중미무역전쟁, 대약진운동, 개혁개방, 문화대혁명, 시안사변

1. 양무운동

2. ()

3. ()

4. ()

5. ()

6. ()

7. ()

8. ()

9. ()

10. 중미무역전쟁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졸업시험

(특차 / 시행일 2019. 11. 1.)

성명: 학번: 2020년 2월 졸업예정여부 ()

기취업자 직장명 : 정규직/비정규직 취업일자:

III. (총 100점. 70점 이상 합격. 90분)

- * 【지문 1】 과 【지문 2】 를 자료로 삼아 다음 목차에 따라 짧은 글을 작성하시오.
- 글 전체의 제목을 정해 적습니다(필요하면 가운데 ‘—’를 두고 부제목을 적습니다).
 - 목차에 따라 네 단락으로 이루어진 글을 씁니다.
 - 목차는 글의 서술 순서와 내용을 지정한 것으로 따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 단락 사이의 연결이 매끄럽도록 서술합니다.
 - 지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신형도시화' 추진의 배경
신형도시화와 호구제도 개혁
신형도시화의 난점
신형도시화 성패에 대한 전망

제목: _____

【지문 1】

얼마 전 중국 정부는 새로운 도시화 계획을 담은 「국가 신형도시화 발전계획(2014-2020)」(이하 「신형도시화」)을 발표하였다. '신형 도시화'는 지난 중국 공산당 18대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것으로, 그 구체적인 계획은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신형도시화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신형 도시화'의 논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중국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면,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주된 성장 방식을 바꿔가는 것은 필수가 된다. 2000년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힘이 투자라면, 이제 요구되는 것은 내수 시장, 특히 소비 수요의 확대이다.

이러한 경제 성장 방식의 전환에서 도시화의 적극적인 추진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에서 도시 거주자의 소비 수준은 농촌 거주자의 그것에 비해서 3.3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주인구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다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소비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바람대로 매년 1,000만 명 정도의 새로운 도시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에 따라 1,700억 위안의 새로운 소비가 추가될 수 있다. 나아가 도시화를 통해 산업 구조의 재편을 도모할 수도 있는데, 소비의 촉진이 3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탈공업화'의 추세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 발전에도 도시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한다면 농업 경영의 다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농업 방면에서의 규모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형도시화에서 핵심은 도시 인구의 증가와 그 관리에 있다. 도시 인구가 매년 증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새로 유입된 인구는 그 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 만약 도시 인구는 증가했지만 그들이 소비자로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소비가 촉진될 리가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도시 문제(城市病)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신형도시화」가 제시하는 주요 업무 방향은 이러한 '도시 인구의 증가와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신형도시화」는 네 가지 주요 임무를 밝히고 있는데, 농업 종사 인구의 시민화, 도시 배치 및 형태의 최적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 향상, 도농(都農) 발전의 일체화가 그것이다. '시민화'는 호적제도 개혁과 농촌 인구의 직업 및 기술 훈련 등을 뜻하며, 도시 인구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최적화'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아무렇게나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과 산업 배치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인구 집중을 유도해야한다는 뜻이다. '능력 향상'은 도시 계획과 거버넌스 기제를 개선하여 현재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발생한 다양한 도시 문제, 예컨대 판자촌의 형성이나 대기 오염 등의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일체화'는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농촌 지역의 '공백'에 다양한 농업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형 도시화'의 핵심 업무는 모두 '도시 인구의 증가와 관리'라는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 성과가 농촌 인구의 안정적인 도시 정착을 중국 정부가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만 지적해 보면, 도시화의 추진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이다. 가령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한다면, 해당 도시 정부는 그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는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 정부의 재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신형도시화」의 발표 당일 진행되었던 기자회견에서도 중점적으로 제기되었던 질문 중 하나는 이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참석했던 정부 인사들은 주로 정부와 기업, 사회의 재정 분담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그 사이에서 일어날 이익 다툼이다. 지금까지 호적제도 개혁의 진척이 더뎠던 것도 사실은 그 제도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집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지금은 그 상황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중공 중앙은 그 이익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방식과 기제는 무엇일까? '신형 도시화'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그 제시된 목표 역시 달성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사회 문제가 불거질 확률도 낮은 편이 아니다.

【지문 2】

중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중국사회는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로 갈리는 신분 아닌 신분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호구(戶口)제도'이다. 중국 호구제도는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은 농촌에서 거주하도록 원칙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중국 거주지 등록제도인 호구제도는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인 1958년 '대약진운동'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이 도시로 대거 이주해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1958년 제정한 '호구등기조례(戶口登記條例)'에 따라 인구가동에 대한 제한을 기본 목적으로 상주(常住) 호구 등기, 임시 호구 등기, 출생 등기, 사망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를 포함하여 그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1978년 이전 엄격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호구등기조례'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식량 배급제 등의 실시로 자기의 거주지를 이탈하여 생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중국에서 호구제도의 문제점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농촌 호구를 가진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대거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농촌 호구를 가진 자가 도시에 거주한다고 해서 도시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호구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때로는 많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기도 하였지만 말이다. 중국은 교육, 의료,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성(省)급 지방정부 별로 시행되어, 호구가 없이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즉 호구의 전환 없이 도시에 이주한 농민은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대학입시에서도 차별을 받으며,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며, 자동차를 사고 주택을 구입하는 데도 많은 장애가 있다.

중국의 호구제도가 농민의 무분별한 도시유입을 제한하여 도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호구제도는 현실 사회에서 '금수저'와 '흙수저'를 가르는 기준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 중의 하나다. 중국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농민이 노동력의 공급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법률·제도적 제한으로 도시민으로 편입하지도 못하였고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여 돌아갈 고향마저도 잃어가고 있다. 타지에 직업을 구하려 고향에 부모(空巢老人)와 아이(留守兒童)를 방치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등 농촌 사회를 해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진핑 집권 이후 농민에게 농촌 집체 소유의 토지사용권 매매를 허용하고 도시 호적을 부여하여 도시에서 정착해 살게 하는 '농민의 도시민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도시와 대도시 주변에 위성도시를 건설하여 이들을 정착시키는 '신형 도시화 정책(新型城镇化规划, 2014~2020년)'이 그것이다. '신형 도시화 정책'의 목적은 도시화에 바탕을 둔 내수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호구제도 개혁도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2014년 7월 국무원이 '호적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戶籍制度改革意見)'을 발표하여 전면적인 호구제도 개혁을 천명한 것은 도시화 정책과 호구제도 개혁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증거이다. 이 호구제도 개혁은 농촌과 비농촌 호구의 철폐와 도시 규모에 따라 호구 개방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도시의 규모에 따라 소규모 도시, 중급 도시, 대도시, 특대도시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호구 개방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베이징(北京)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호구 포인트(積分落戶)'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4+2+7'이라는 이 제도는 4가지 자격 조건, 2가지 기본 사항, 7가지 항목에 따른 점수제를 기본으로 한다. 즉 호구를 신청을 하려면 거주증(居住证)이 있어야 하고 법정 퇴직연령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회보험료를 7년 이상 연속 납부하였고, 형사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베이징에 안정적인 직장과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요건이다. 그러나 베이징 '호구 포인트'의 조건을 충족시키기란 대부분의 외지 호구를 가진 사람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원하는 사람은 조건을 충족하라는 정책이다. 사실상 베이징시는 새로운 호구의 취득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이다. 앞으로 베이징 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인에게 최고의 신분을 부여받는 영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베이징, 상하이 소재 대학 졸업자들이 이선도시(二线城市)로 직장을 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베이징, 상하이에서 직장을 잡아도 호구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의 이선도시는 조건에 맞는 유능한 인재에 호구 부여는 물론 주택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으로 인재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 상하이 등의 특대도시와 이선도시(二线城市)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층은 마지막 선택으로 조건에 맞는 중소도시로 호구를 이전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의 도시화 정책과 호구 정책은 더욱 견고한 계급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세분화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 호구제도의 가장 극단적인 폐해가 농촌 호구자 특히 '농민공(农民工)'으로 대표되는 계층이 의료, 교육, 취업 등의 사회보장에서 소외되고 그들의 자녀 세대까지 '신세대 농민공(新时代农民工)'으로 칭해지면서 도시의 주변인으로서 사회안전망 밖에 놓이게 되어 신분의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이 문제였다. 중국의 도시화 정책과 호구제도 개혁이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젊고 유능한 사람은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원하는 도시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농민공' 등의 사회적 소외계층은 개혁이 오히려 더욱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장벽이 되어가고 있다.